

초광역 협력으로 이차전지 산업 '시너지'

전북자치도, 충북·경북·울산과 손잡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특화단지 간 상생 협력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울산 전지전 센터에서 열린 'WAVE 2024 울산 세계미래산업박람회'에 참석해 울산, 충북, 경북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간 지정된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합의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과 울산시장, 충북 및 경북 부단체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합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

로 자리 잡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각 특화단지들이 보유한 기술력과 자원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특화단지 중심의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 △지역 공급망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신산업 추진 방향 공유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협력 △현안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이차전지 국가적 산업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을 포함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들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충북, 경북, 울산 등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을 포함한 각 지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들은 각자의 강점과 자원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 성장을 이루며 초광역적 산업 발전 모델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한다"며, "이차전지 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전북자치도는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제2차 정책포럼 성황리 마무리

지역·대학 협력으로... AI 시대 평생학습 실현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를 여는 열쇠, AI와 평생학습: 지역·대학이 그리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려, AI 시대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의 방향과 지역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도내 대학 관계자, 호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 약 120여 명의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권두승 명지전문대 총장은 초연결 사회와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창의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기 위해 평생학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모델의 필요성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됐다.

유옥한 국민대 교수는 지역사회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동승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장은 고등평생교육이 지역사회와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신희 광주보건대 교수는 디지털 역량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디지털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며 디지털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순서는 종합토론에서는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및 대학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평생교육 정책이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모델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현용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이번 포럼이 AI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성료... 지속가능한 어업 결의

도지사·어업인 등 500여명 참여... 자율관리어업 중요성 공유·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유공자에 표창 수여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부안군 스포츠평크에서 개최한 '제3회 전북자치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율관리 어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어업인 간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권익현 부안군수, 김만기, 김정기, 김슬지 도의원, 박병래 군의장 등 주요 인사와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율관리 어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율관리 어업은 어업인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어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는 8개 시군에 58개소, 약 3,73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율관리 어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은 부



7일 부안군 스포츠평크에서 열린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군 자율관리 어업연합회 김재태 회장과 군산시 명도공동체의 안용운 위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도지사 표창은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안군 고마제 내수면공동

체 김종필 위원장, 고창군 반월공동체 김진영 위원장, 군산시 장자도 공동체 윤덕식 회원이 수상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율관리 어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도내 어업인과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율관리 어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평통 전북, 하반기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회장 송현만)는 7일 '북한의 2국가론과 8.15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세미나실4)에서 개최했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일 담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 포럼으로 진행했다.

주상현 포럼연구위원장(전북대 교수)이 좌장으로 진행한 포럼은 안문석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한의 2국가론과 8.15 통일 독트린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박성용(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안병우(전북지역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위원장), 이정찬(전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안문석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하게 된 원인인

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시 정책, 북러협력 강화 등)과 △내적 요인(체제 결속, 선건설 부국강병론, 김정은 홀로서기, 남한 영향 차단)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했다.

안문석 교수는 8.15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보완,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며, 통일의 주체를 남북한 국민으로 명시한 국민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유 민주주의로의 통일"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송현만 부의장은 "북한이 작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부정했지만, 8.15 통일 독트린 실천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천 야생조류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검출

반경 10km 가금농가에 예찰 강화·철새 도래지 방역 조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정읍 영파(정읍천)에서 포획한 원앙 시료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내에 확인될 예정이다.

정읍천에서의 H5형 AI 항원 검출로 전북자치도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서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농가 63호(닭 55호, 오리 6호, 메추리 2호)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에 대한 집중소독과 차단 방역을 실시해 AI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월 31일 정읍천

에서 채취된 분변 검사 결과, H5형은 바이러스 미분리, H7형은 저병원성(H7N7)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행해 들어 5건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가 확인되며, 이번 겨울철 AI 전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성효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 신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와 축사 주변에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 당국(☎ 1588-4060)에 신고를 요청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현장 방역 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본 감 소 공 고

본 회사는 2024년 11월 1일 사원총회(총사원의 동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700,000,000원을 금 35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유한회사 보웬스파엔리조트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4355
대표자 이사 임 경 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